

번역과 중의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정 해 갑
(상명대)

I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발달, 음속보다 빠른 교통 체계의 발달로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간, 집단간, 개인간의 접촉이 활발하고, 그에 따른 문화적, 지식적 접촉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언어 교류가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언어들 간의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번역을, 하나의 언어 즉 원천언어(SL)를 목표언어(TL)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관할하는 번역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번역학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번역과 번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과 대조적으로, 번역을 단순히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쉽게 해낼 수 있는 단순 작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팽배하고, 아울러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번역이 외국어 학습을 돕는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태동한 것도 사실이다.

번역의 행위는 고대로부터 있어 왔지만, 번역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영어권에서는 “번역 현상 및 번역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Holmes 173)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번역학을 규정한 홈즈(James Holmes)에 의해 비로소 학문적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합적인 문제들”인데, 그것들은 단순한 직관적 언어 능력 이상의 언어학적, 문화적, 문학적 이해에 기초한 번역가의 자질에 관한 논의와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전문적 작업자로서의 번역가의 자질과 관련하여, 영국의 번역가 뉴마크(Peter Newmark)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언어는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번역가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야 될 수 있다,

Any old fool can learn a language, but it takes an intelligent person to become a translator. (85)

번역가는 단순히 언어에 능통한 자라는 의미보다는, 직관적 언어 능력 이상의 복합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즉, 뉴마크가 말한 ‘지적으로 뛰어난’(intelligent) 사람이 번역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은, ST의 분석과 TT로의 변환 작업시 기초적 언어 능력, 이해력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이론적 토대를 갖춘 번역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언어능력,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어능력이 번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번역을 한 번도 배우지 않고도 뛰어난 번역사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번역에 도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사람들은 간과한다. 언어능력은 번역능력의 ‘필요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번역능력이 생기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적 작업이 아니라 일정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향 26)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가가 보편 타당한 번역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번역 수행능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질, 즉 다양한 능력과 관련하여, 언어학적, 문학적, 그리고 문화적 분석능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행히 캣포드(J. C. Catford)를 중심으로 번역 불가능성과 연관되어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또한 바바(Homi Bhabha)를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문화이론과 번역의 연계성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은 바람직하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라이스(Katharina Reiss)의 주장처럼, 언어외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 요소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54-58).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또한 가장 쉽게 지나치기 쉬운 본질적인 토대가 되는 언어학적 관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번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번역 작용을 분리시킨 표도로프(A. V. Fedorov)는 무엇보다도 번역은 언어적 작용이며 언어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번역 이론은 언어과학의 한 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376), 이런 주장은 21세기의 번역학 이론의 방향설정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잔 바스넷은 번역은 부차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 행위이며, “번역물은 의미론적, 구문론적, 화용론적 수준에서 해독하고 기호화하는 복잡한 체계에 따른 결과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38). 번역이론에 ‘변이’의 개념을 도입한 캣포드의 경우, 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번역학에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볼 때, 번역 수행에 있어서 언어학적 지식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 유형의 하나로, 번역학과 언어학의 접목과 관련하여 촘스키(Noam Chomsky) 식의 보편문법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언어 층위를 심층, 표층구조로 2분하여 보편문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리-매개변인(Principles and Parameters)이론을 도입하는데, 이는 ST에서 TT로 완전한 전이를 추구하는 번역학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이다(Eugene Nida)가 제시한 언어 과학적 접근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촘스키의 원리-매개변인 이론에 입각하여 번역학적 중의성(ambiguity) 문제를 재고함으로써 보편문법에 근거한 보편 타당한 번역의 가능성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촘스키 언어이론의 발달 과정에 따른 중의성 분석을 제시하며, 중의성의 태생이 보편

문법적 심층 구조에 기인함을 드러내고자한다. 아울러 심층 구조가 표층 구조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해 ST가 TT로 전이 되는 실제적 번역 과정을 유추해보고자 하며, 이로써 단순히 직관적 언어능력에 의존하거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몰입되는 번역학 이론을 넘어서, 보다 균형 잡힌 객관적, 과학적 이론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으로서의 번역학 연구를 추구한 나이다는 촘스키의 언어 이론 모델을 번역학에 도입하여 ST를 해독(decode)하는 기법과 이를 TT에 기호화(encode)하는 절차를 번역으로 보았다(60). ST를 심층 구조로, TT를 표층 구조로 놓고 ST를 해독하며, 전이 과정을 거쳐 TT로 재부호화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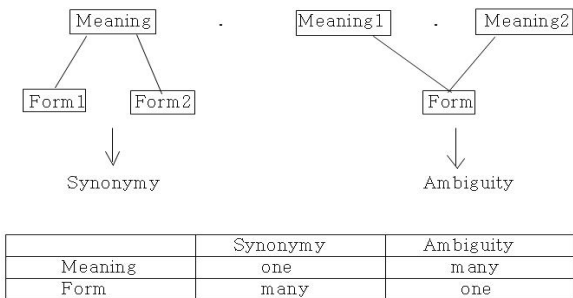
이러한 번역 이론의 모델이 된 촘스키의 언어 이론을 살펴보면, 언어 층위를 심층 구조와 표층 구조로 나누고, 심층 구조에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어 표층 구조가 생성된다는 언어 구조에 대한 이론이다. 우리가 번역하게 되는 ST 문장은 원천 언어적 관점에서는 표층 구조이지만, 동시에 수용 언어적 관점에서는 심층 구조이다. 또한 심층 구조로서의 ST 문장이 어떤 규칙에 의해 TT 문장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밝히는 과정은 번역학의 본질적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ST 문장은 표층 구조에서 심층 구조로 환원되는 필연적 과정을 겪는데, 이는 나이다 식의 분석 작업인 해독(decode)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다음 이렇게 해독되어진 심층 구조가 새로운 표층 구조로 기호화(encode)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전달에 성공하는 번역물이 생산된다. 즉, 표층 구조인 TT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심층 구조인 ST 문장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역 과정의 본질적 영역에 해당하는 해독과 기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며 동시에 번역 과정에서 의미를 간과하기 쉬운 예로서 중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나이다 식의 해독과 기호화 과정을 촘스키 식의 언어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며, ST와 TT 간에 연계되는 심층, 표층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레스터(Mark Lester)는 ‘중의적 문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의성 문장이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문장이다.

An ambiguous sentence is one in which there is one form but two or more meanings.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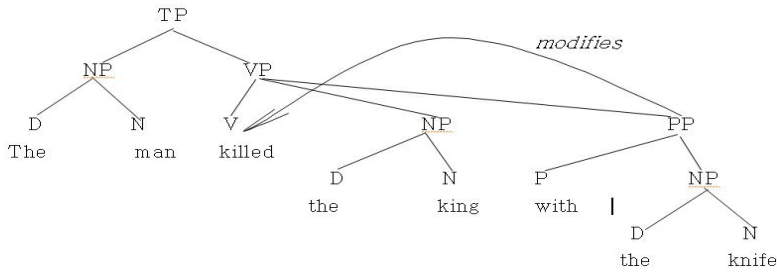
또, 크리스탈(D. A. Crystal)은 중의성을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나 문장”(15)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가진 중의성은 그 원인별로 문장의 구조상, 즉 통사적 중의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와 어휘의 특성상 중의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촘스키의 언어 이론의 발전 과정에 따른 통사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구조적 중의성과 대비되는 구조적 동의성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스톡웰(Robert Stockwell)은 중의성과 동의성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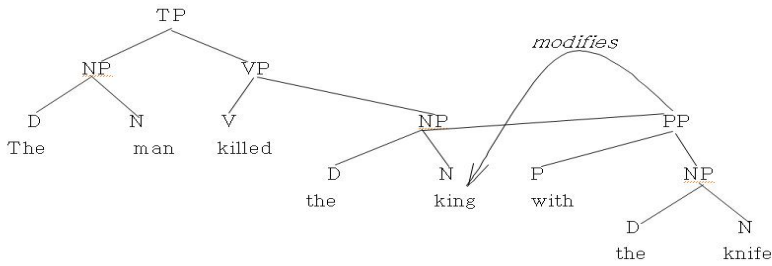
스톡웰의 표가 보여 주듯이 통사적 중의성은, 이러한 두 층의 언어 구조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때, 하나의 표층 구조가 두 개의 심층 구조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아래 예문의 중의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1) The man killed the king with a knife.

위 문장의 심층 구조를 수형도로 그려 보면 아래와 같다.



수형도 1.



수형도 2.

통사적 원리에 의하면, 수식와 피수식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식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 이 원리는 촘스키 이론의 초기 단계의 구구조(PSRs)이론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어떤 범주 X가 있으면, 이 범주의 구(XP)가 어떤 핵어(Y)를 수식할 때, 그 XP는 Y와 반드시 자매 관계를 이루어야하고, Y를 핵어로하는 구범주 YP의 딸이어야 한다.

Principle of Modification: If an XP(that is, a phrase with some category X) modifies some head Y, then XP must be a sister to Y(i.e., a daughter of YP). (Carnie 87)

위의 두 수형도에서 [PP with the knife]는 수식어인데, 피수식어가 각각 다르다. 피수식어가 다른 두 개의 심층 구조가 하나의 표층 구조 문장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의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형도 1에서는 동사 [V killed]가 VP의 핵어이면서 [PP with the knife]와 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피수식어가 되고, 수형도 2에서는 NP의 핵어인 명사 [N king]이 [PP with the knife]와 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피수식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형도 1을 심층 구조로 가진 표층 구조는 그 의미가 ‘왕을 죽이는 도구로 칼이 사용되었다’(the man used a knife to kill the king)이고, 수형도 2를 심층 구조로 가진 표층 구조는 그 의미가 ‘칼을 들고 있는 왕을 그 남자가 (가령, 총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죽였다’(the king with the knife was killed by the man(who used a gun))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심층 구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에 의해 중의성이 생기는 다양한 문장들을 살펴보자. 아래의 예문은 동사 went가 quickly의 피수식어인 경우와 동사 said가 quickly의 피수식어가 되는 두 가지 경우로 인해 중의성이 생긴다.

(2) John said Renee went to the store quickly.

하나는, [VP[v went][PP to the store][AdvP quickly]]의 심층 구조에서 [AdvP quickly]가 자매 관계인 [v went]를 수식해서 ‘Renee가 가게로 재빨리 갔다’는 해석이 되고, 다른 하나는 [VP[v said][CP Renee went to the store][AdvP quickly]]의 심층 구조에서 [AdvP quickly]가 [v said]와 자매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수식해서 ‘Renee가 가게로 갔다고 John이 재빨리 알려 줬다’는 해석이 된다.

파일즈와 앨지오(Pyles & Algeo)는 다음의 예문을 통사적으로 수식, 피수식어 관계에 의해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다(163).

(3) She painted the picture in the attic.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a. She painted the picture that was in the attic. b. She painted the picture while she was in the attic.

(3)의 문장은 아래와 같은 통사적 차이로 각각 a, b의 해석을 가지게 된 것이다.

a'. [VP[V painted][NP[D the][N picture][PP in the attic]]]

b'. [VP[V painted][NP the picture][pp in the attic]]

a'에서 [PP in the attic]가 절점 NP 아래에서 NP의 핵어인 [N picture]와 자매 관계를 이루어 그 핵어인 'picture'를 수식하고, b'에서는 [PP in the attic]가 절점 VP 아래에서 그 VP의 핵어인 [V painted]와 자매 관계를 이루어 그 핵어인 'painted'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진다. 아래의 문장도 구조적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4) You can't get fresh fruit and vegetables these days. (Lyons 401)

라이온스(John Lyons)는 이에 대하여 수식어 'fresh'에 대한 피수식어가 'fruit'만 인 경우와 'fruit and vegetables'가 될 수 있는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하므로 중의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 다른 두 개의 심층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X-bar theory에 의한 분석이므로 그에 따라 수정된 수식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수정된 원리: 어떤 구 범주 XP가 어떤 핵어 Y를 수식하는 데 있어서 XP는 반드시 그 핵어 Y나 또는 Y의 투사 범주(즉, Y', YP)의 자매이어야 한다.

Principle of Modification(revised)

If a YP modifies some head X, then YP must be a sister to X or a projection of X(i.e., X', XP). (Carnie 174)

‘fresh’가 ‘fruit’만 수식하는 경우는 [NP[N^{AP} fresh][N^N fruit]][_{conj} and][N^N vegetables]의 구조를 가지고, ‘fresh’가 ‘fruit and vegetables’를 수식하는 경우는 [NP[N^{AP} fresh][N^N fruit and vegetables]]의 구조를 가진다.

1980년대 프롬킨(Victoria Fromkin)은 아래의 문장을 구조적 중의성이 있는 문장으로 분석했다(234-235).

(5) Mary and Joe or Bill frightened the sheepdog.

위 문장은 다음의 두 가지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a. Mary and Joe frightened the sheepdog or Bill frightened it. b. Mary and Joe frightened the sheepdog or Mary and Bill frightened it. 위 예문이 중의성을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장 (5)가 중의성을 가지는 이유는 중의적인 단어 때문이 아니라, 영어 통사 규칙에 의한 구구조 표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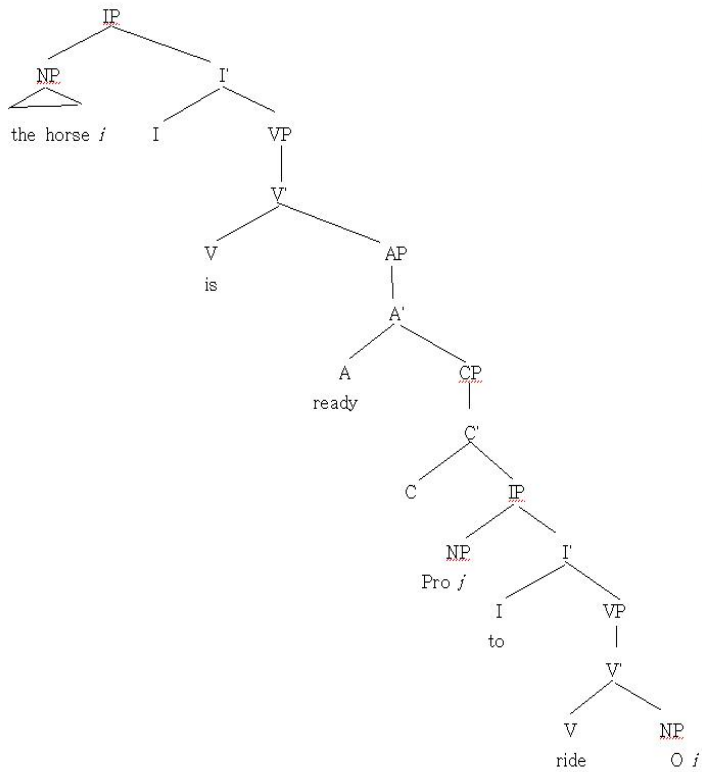
The double meaning of sentence (5) is not due to any ambiguous words, but rather to the fact that here are two different phrase-marker representations of (5) allowed by the rules of English syntax. (ibid.)

그리고 표층구조에서 드러나지 않는 심층구조 상의 동지시 어구(identical phrase) 생략에 의해 문장의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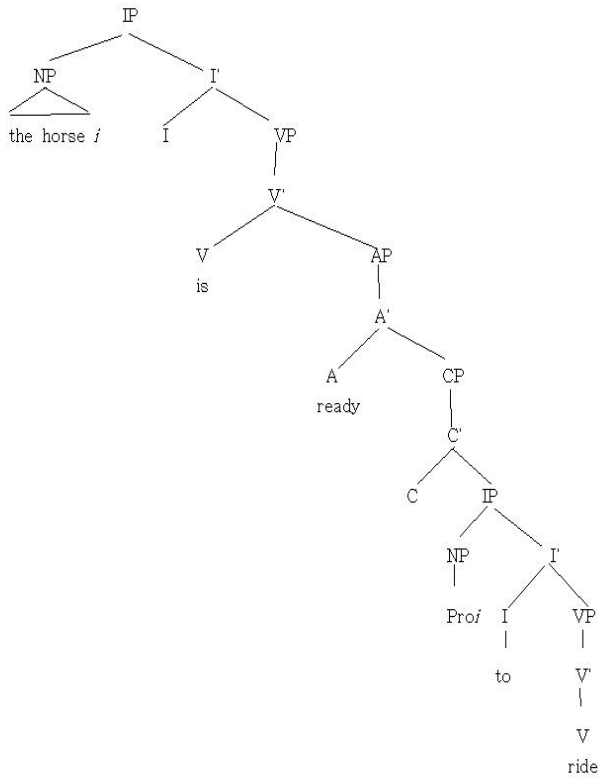
(6) The horse is ready to ride.

위 문장은 첫째, ‘누군가가 말을 탈 준비가 되어 있다’(The horse is ready (for

someone) to ride)라는 뜻과 둘째, ‘말이 (트레일러에) 탈 준비가 되었다’(The horse is ready to ride (in the trailer))는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로 해석 될 수 있다. 해석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수형도 3.



수형도 4.

계속해서 또 다른 경우들을 살펴보면, V+ing의 형태가 그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경우, 즉 Ving +명사의 구문에서 Ving를 명사적 성격이 강한 동명사로 보느냐, 형용사적 성격이 강한 현재 분사로 보느냐에 따라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도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7) Flying planes can be dangerous. (Bunt 112)

위 문장은 변형 규칙이 적용된 후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즉, a. Planes

which are flying can be dangerous. b. To fly planes can be dangerous. 이와 같은 구조의 중의성 문장을 아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8) Hunting lions in the bush can be dangerous.

위 문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a. Hunting lions in the bush are dangerous. b. Hunting lions in the bush is dangerous. a)의 해석에서 hunting은 lion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이고 b)의 해석에서 hunting은 동명사로서 lions와 명사 + 명사 어구를 이루어 주어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문장처럼 현재분사와 동명사의 두 가지 경우로 해석 될 수 있는 중의성을 갖게 되는 예문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Biting dogs can be bothersome (Langacker 125)

- a. The dogs which bite are bothersome
- b. To bite dogs can be bothersome

(10) He likes entertaining guests. (Wardhaugh 133)

- a. He likes to entertain guests.
- b. He likes guests who are entertaining.

(11) The scriptwriter was promoted for his entertaining new ideas.
(Langendoen 14)

- a. The scriptwriter was promoted. He was entertaining new ideas.
- b. The scriptwriter was promoted. His new ideas were entertaining.

위 문장들에서 ‘biting,’ ‘entertaining’이 동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현재분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게 된다.

다음으로 대명사와 관련한 구조적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들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말에 비해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높고, 그 대명사가 대체하는 명사의 내용이 훨씬 다양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언어 습관의 차이와 대명사가 문장 내에서 다양한 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차

이점을 잘 인지하고 대명사 번역시 정확한 지시 내용을 알고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문장에서 대명사가 지시할 수 있는 지시물(referent)이 두 개 이상일 수 있는 문장구조에서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2) Norris said that he was sick. (Grinder & Elgin 101)

위 문장의 중의성은 두 가지 심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먼저 ‘Norris_i said that Norris_i was sick’라는 심층 구조 즉, 주절의 주어 ‘Norris’와 co-indexed된 종속절의 ‘Norris’가 대명사화 규칙을 거친 후 종속절의 ‘Norris’가 ‘he’로 표층 구조에 나타났다는 해석 하나와 또 다른 심층구조 ‘Norris_i said that he_j was sick’에서 종속절의 ‘he’와 문장의 주어 ‘Norris’는 co-indexed가 되지 않았으므로, 동일인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표층구조를 가지는 경우이다.

재귀대명사도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3) The wire made the contact itself. (Fries 1952:200)

위 예문에서 ‘itself’가 주어 ‘the wire’를 지시하는 경우의 해석과 목적어 ‘the contact’를 가리키는 경우의 두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중의성 문장이다. 이와 같은 대명사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경우의 중의성은 번역시 번역의 단위를 이루게 되는 ‘문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양질의 번역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영어 단어 중에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가령, in이나 on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촘스키(1965, 101)는 on이 있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 그 경우를 설명해 준다.

(14) He decided on the boat.

위 문장에서 ‘on’이 전치사인 경우와 부사로 쓰인 경우 해석이 달라진다. a. He chose the boat. b. He made his decision while on the boat. 다음으로 in이 쓰인 경우의 문장을 보자.

(15) James slipped in the booze.

위 문장에서 'in'이 전치사로 쓰였으면 명사 'booze' 뒤로 옮겨질 수 없다. 따라서 'in the booze'가 전치사 구를 이루어서 '그 술잔치에서'라는 의미가 되어 전체 문장의 뜻이 'James는 그 술잔치에서 넘어졌다'로 해석될 수 있고, 부사로 쓰였다면 'booze' 뒤로 옮겨 질 수 있는 통사 구조를 가지고 'James slipped the booze in'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James가 술을 슬며시 밀어 넣었다'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처럼, 수식어, 피수식어간의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고, 단어의 의미가 미치는 영역(scope)의 크기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달라져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문장이 이에 대한 예문이다. 아래 문장의 양화사 'everyone'과 부정어 'not'의 영역의 크기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각각 다르게 분석된다.

(16) Everyone hasn't finished the assignment yet.

이 문장에 대한 통사적 분석은 최소주의 원리(minimalist program)중 하나인 copy-deletion을 사용할 수 있다.

[CP[C \emptyset][TP Everyone [T has][NegP not [Neg \emptyset][VP everyone [V finished] the assignment yet]]] (Radford 244)

래드포드(Andrew Radford)에 의하면, 영어의 주어는 원래 기저 구조에서 동사구내에서 생성(everyone의 자리) 되는데, copy-deletion에 의해 이탤릭체의 자리로 이동되어서 'Everyone hasn't finished the assignment yet'의 문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된 후의 문장의 수형도 상에서 'everyone'이 'not'보다 높은 위치에 오게 되므로, 'everyone'이 'not'보다 그 영역이 크다. 이 구조의 문장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게 되면, 'Everyone is in the position of not having finished the assignment yet' 즉, '모든 사람들이 숙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석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원래 동사의 주어가 생성된 기저 구조,

즉, 'everyone'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 한다면, 구조상 'not'의 영역이 'everyone'보다 위에 있게 되어 그 영향력이 더 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Not everyone has finished the assignment yet' 즉, '모든 사람들이 숙제를 마친 것은 아니다'는 숙제를 마친 사람이 일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작용역(scope) 차이에 의해 생기는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을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7) He didn't bring me thirty men. (Gleason 395)

클리슨(H. A. Gleason)은 이 예문이 'not'의 작용역의 차이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경우의 의미로 각각 해석되어 질 수 있다고 한다.

- a. He didn't bring me thirty men: only she brought me thirty men.
- b. He didn't bring me thirty men: he only sent them to me.
- c. He didn't bring me thirty men: only to her he brought thirty men.
- d. He didn't bring me thirty men: he brought me only twenty men.
- e. He didn't bring me thirty men: he brought me boys only.

위 문장들과는 달리 부정어 not이 없는 경우에도, 어휘의 작용역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의성 문장이 있을 수 있다. There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존재 구문의 중의성을 예로 들어보자.

(18) There is a man here.

츨스키는 위의 문장을 아래의 문장으로 다시 써도 같은 뜻을 가진다고 보았다 (Lasnik 26-27). 즉,

(19) A man is here.

There의 자리에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a man'으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동사의 일치를 들고 있다. 아래의 문장들을 보자.

(20) There is /*are a man here.

(21) There are/*is men here.

그러나 아래의 예문들은 두 문장이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다.

(22) A man is likely to be here.

(23) There is likely to be a man here.

위의 두 문장은 각각의 의미 해석에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어휘들의 작용역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22)의 경우 그 작용역의 구조가 a man (likely)를 이루어 'a man'이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경우와 그 작용역의 구조가 likely (a man)을 이루어 'a man'이 좁은 작용역을 가지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a man'이 넓은 작용역인 경우의 의미는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이고, 'a man'이 좁은 작용역인 경우의 의미는 '한 사람이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다'이다. 그에 반해 (23)의 'a man'은 좁은 작용역만을 가지는 중의성이 없는 문장으로, (22)의 좁은 작용역의 의미와 같다.

III

번역의 과정은 번역가의 언어적 분석과 적당한 어휘의 선택과 “치환”의 과정이 번역가의 일련의 직관적 사고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 번역가 개인의 판단과 선택만이 번역의 역량으로 여겨져, 번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에 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자료를 분석, 검토하는 패러다임은 번역가가 주관적 판단과 선택 이전에 언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에 접근하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과학화를 위해 표도로프, 바스넷, 캣포드 등은 번역학과 언

어학의 학제간 연구와 유기적 관계를 강조해온 학자들인데, 이들과 같은 시각에서 유진 나이다는 번역학에 과학적 연구 기법을 도입하고자 시도하며, 원리-매개변인에 의해 언어를 분석한 촘스키의 심층구조, 표층구조 개념을 번역의 ST 분석과 TT 구성의 원리로 제안했다. 언어 간의 보편 문법을 추구한 촘스키식의 언어 분석 접근법은 이중 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재생하는 번역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학제간 연구의 훌륭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많은 언어적 분석 중에서 흔히 번역에 많은 오류를 초래하게 하는 중의성 문제를 영어에 있어서의 통사적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는 해독과 기호화라는 나이다 식의 번역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며 동시에 통사구조 분석의 토대가 없이는 문장 의미 파악이 애매하거나 불완전한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 예가 중의성 문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촘스키의 언어의 2중 구조 분석 개념에 근거하여 중의성을 하나의 표층 구조로 나타나는 심층 구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의 예를 제시했는데, 이는 표층 구조 상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TT 문장은 심층 구조 상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ST 문장이기 때문이다. 번역 과정의 첫 단계인 해독의 과정에서 이러한 서로 다른 의미를 분리해내는 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런 선행 분석에 따라 각기 다른 TT 문장으로 재구성되는 번역 과정을 가장 잘 유추해 볼 수 있는 몇몇 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The man killed the king with the knife'에서 처럼, 수식어, 피수식어의 관계가 다른 2개의 심층 구조에 의한 중의성 문장을 제시했고, 'The horse is ready to ride'처럼 표층구조에 드러나지 않는 심층구조 상의 동지시어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중의성 문제, 다음으로, 'Hunting lions in the bush can be dangerous'같이 Ving가 심층구조에서 다른 구조를 가져 동명사로 해석되는 경우와 현재분사로 해석되는 경우의 중의성 문제, 넷째, 'The wire made the contact itself'같이 대명사와 채귀 대명사가 심층 구조에서 다른 구조를 가져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A man is likely to be here'처럼 어휘의 작용역 차이에 의해 생기는 문장을 최소주의 이론에 의한 분석을 해 보았다.

라이스는 번역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의미론, 어휘론, 문법, 문체론을 포함하는 언어내적 기준과 그 외의 상황, 주제 분야, 시간, 공간 등 번역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외적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중의성과 관련한

통사적 이론의 고찰은 언어내적 기준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번역 이론과 번역의 추세가 언어외적 기준에 충실한 반면, 언어내적 기준에 대한 관심은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메이(Jacob Me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어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모두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언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

Acquiring the linguistic and social communicative conventions is a task that language users acquire gradually, and many of them only imperfectly.
(43)

메이의 말처럼 인간의 언어 습득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번역은 더욱 그러하다. 더 나아가 불완전한 언어로 표현된 언어 그 자체의 구조나 어휘의 의미만으로 ST를 분석, TT로 재구성한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온전히 담긴 번역물을 재창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시 고려해야 할 많은 사항 중에 라이스가 제시한 언어외적 기준의 요소를 포함하는 화용론적 측면의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번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언어학적 접근과 연구는 번역학 발전에 있어 훌륭한 이론적 토대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향. 2008. 『번역이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 출판.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Bunt, H. C. 1985. *Mall Terms and Model-theoretic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P.
 Carnie Andrew. 2007. *Syntax : A Generative Introduction*. Malden: Blackwell.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 Crystal, D. A. 1985.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Oxford: T. J. P.
- Fedorov, A. V. 1958. *Vvedenie v Teorju Perevoda*, 2ed. refundue, Moscou, Institut des litteratures en langues 'e- trangères.
- Fries, C. C. 1952. *The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Fromkin, V. & R. Rodman. 198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Gleason, H. A. 1965. *Linguistics and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Grinder, J. T & S. H. Elgin. 1973. *Guide to Transformational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Holmes, J. S. 1988.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lpi.
- Jacobs, R. A & D. S. Rosenbaum, 1968.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Malden: Blaisdell.
- Langacker, R. W. 1968. *Language and Its Struc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Langendoen, D. T. 1970.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 Wilson.
- Lasnik, Howard. 2003. *Minimalist Investigations in Linguistic Theory*. London: Routledge.
- Lester, Mark. 1971. *Introductory Transformational Grammar of Englis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Lyons, John. 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P.
- Mey, Jacob. 2001. *Pragmatics*. Malden: Blackwell.
- Newmark, Peter. 1969. "Some Notes on Translation and Translators." *The Incorporated Linguist* 8(4): 79-85.
- Nida, E. A. and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Pyles, T. & T. Algeo. 1970. *English: An Introduction to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Radford, Andrew. 2005.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P.
- Reiss, Katharina. 1971.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Munich: M. Hueber.
- Stockwell, R. P. 1977. *Foundations of Syntactic Theory*. Englewood: Prentice-Hall.
- Wardhaugh, Ronald. 1972. *Introduction to Linguistics*. New York: McGraw-Hall.

[Abstract]

A Theoretical Study on Translation and Ambiguity

Jeoung, Haegap
(Sangmyung University)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we avoid structural ambiguities in translation, based on English syntactic theories. As Eugene Nida suggests, ST and TT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re related to Chomsky's deep structures and surface structures. In the process of pursuing a universal grammar, Chomsky proposed a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which may account for Nida's translation strategy. The process of encoding SL and restructuring TL is the same as our brain works in language acquisition on the basis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For this purpose, a couple of patterns of structural ambiguity are analyzed: 1.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difying and the modified, 2. by the omission of the identical phrase, 3. by gerund and participle, 4. by pronoun and reflexive, 5. by lexical scope. Like the shift from ST to TT, deep structures transform into surface structures in the brain of a language user. Since, as Bassnett says, a translator is a creator, and "the product is the result of a complex system of decoding and encoding on the semantic, syntactic and pragmatic levels," a translator is supposed to do well with the scientific language game of encoding and decoding, let alone creativity.

▶ Key Words: ambiguity, syntactic structure, Principles and Parameters, Eugene Nida, Noam Chomsky, encoding, decoding, shift, transformation, scope

정해갑

상명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hj7788@paran.com

관심분야: 번역이론, 서양고전 번역과 비평, 셰익스피어, 문화비평

논문투고일: 2009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